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영용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핵심 경제 이슈는 경제민주화이다. 이른바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혁이 요체인데, 그 중에서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출자구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총수가 순환출자 등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모호하다. 언어는 의사소통 도구의 차원을 넘어 그 자체에 개념과 사상을 담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에는 분명한 개념이나 사상이 들어 있지 않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라는 양립(兩立)할 수 없는 두 단어를 조합해 놓은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만 참여하는 경제적 의사결정 방식과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특정 사안에 대해 잘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합친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좋은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지배구조란 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이 경영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

업을 운영하도록 규율하는 메카니즘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총수는 지배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이다. 그런 만큼 다른 어떤 주주보다도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려 있어 기업의 흥망성쇠에 가장 노심초사하고 주인-대리인 문제도

경제민주화의 허상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총수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분의 다소는 문제가 아니다.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계열사 간 출자구조 또한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출자구조는 오랜 세월 동안 기업이 성장하고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달라 그룹별로 출자구조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출자구조가 아니

라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그룹인 삼성과 현대차는 순환출자 구조(A기업→B기업→C기업→D기업→A기업)로 되어 있다.

출자구조를 문제 삼을 논거가 없는 마당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계열사 간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규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도 논거를 가질 수 없다. 이는 한 계열사(A)의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출자를 A가 가진 순 자산(다른 계열사에서 받은 출자액을 제외한 자산)의 일정비율(과거의 경우 25% 또는 40%)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투자 위축과 외국 자본에 대한 자국 자본의 역차별,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의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경쟁의 양상이 기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 자체를 대체해버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중소기업 적합 품목을 선정하는 것도 상업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누가 어떤 품목을 만

들지는 소비자들에 의해 판가를 내는 것이 몇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한다는 주장도 거래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착취할 수는 없다.

예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페론 대통령 집권 이후 크게 망가졌다. 페론 대통령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분배 우선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오쩌둥 치하에서 굶어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던 중국은 지금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따라 사유 재산을 널리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잘 살고 못사는 이유로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업이 이윤은 소비자들에게 봉사한 대가이다. 돈을 많이 벌고 기업집단이 성장한 것은 소비자에게 크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이 작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방법 비상에도 잇단 성폭행, 경찰은 뭘하나

방법 비상령 속에 광주와 해남에서 잇따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이후 경찰의 불심검문이 부활하고 순찰이 강화됐지만 도심에서 또다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6일 오후 11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옆 공터에서 A(15·고1)양이 한 남성에 끌려가 근제 원복 공사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큰길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최근 치안강화대책에 따라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 순찰을 강화하는 와중에 범인은 보란 듯이 경찰이 순찰하는 인근 도로에서 미성년자를 납치해 성폭행한 것이다.

범인은 경찰의 검문이 끝난 후 A양을 노렸다가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4일째 검거되지 않아 2차 범행마저 우려된다. 이 지역은 범죄 취약지역으로서 경찰이 도보로 순찰하는 치안 율레 길 인근에 해당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건 당일 순찰을 했지만 고정근거가 아니라 도보로 걸어 가며 순찰하는 것이라 발견하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순찰 자체가 극히 형식적이고 허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셈이다.

또 7일 오후 5시 20분께 해남군 해남읍 터미널 부근에서 성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이모(28)씨가 B(12·여)를 성폭행하려다 인근 주민이 불참자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씨는 이날도 해남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B양을 성추행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방법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을 비롯 연이어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범인을 서둘러 검거해야 한다. 성범죄 무방비 사회라면 경찰이 직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성범죄 유발’ 성인 PC방 관리 강화해야

끔찍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성인 PC방 등 성범죄 유발 환경은 여전히 지속적인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작년까지 음란물이 태반인 성인 PC방이지만, 자치구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차단을 위한 제도·환경의 재정비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본보가 성인 PC방을 취재한 결과, 칸막이 안 PC에는 성적유구를 자극하는 음란물이 즐비해 성범죄 유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C를 켜면 ‘야동’(야한 동영상) 폴더와 함께 성인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등장한다. 폴더 안에는 수천개의 야동이 국가별, 연령대별, 종류별로 정리돼 있다.

야동은 ‘셀프’, ‘근친’, ‘임산부’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손님들을 유혹한다. 모시고 풀러에는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서 몰래 찍힌 영상이 태반이다. 유명 연예인의 누드 화보 동영상도 눈에 띈다.

특히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 1명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아동 등 범죄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않는 동성상도 많다.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범 고중석도 성인 PC방에서 아동 음란물을 즐겨 본 것으로 밝혀져 성인 PC방이 성범죄 총동 유발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성인 PC방 업주 8명이 음란물을 상영하다 9일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문제는 성인 PC방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처벌규정이 약하고, 행정처벌과 연계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음란물을 상영하다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행정처벌 등은 받지않아 업주 이름 바꿔 재영업하기 일쑤다.

사법당국은 차제에 성범죄 차단을 위한 제도·환경의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성범죄 유발 환경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는 관포之交(管鮑之交)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절친’이었던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가 나는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을 가리킨다.

사(史記)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동업으로 장사를 하다 관리가 되면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관중은 군주인 양공의 공자(公子) 규(糾)의 보좌관이 됐고, 포숙아는 규의 이복 동생 소백을 섬기게 된 것이다.

그 무렵 양공의 사촌 아우 공손무지가 양공을 시해하고 임금 자리를 빼앗는 사건이 발생해 둘은 분의 아니게 정적이 되고 말았다.

포숙아와 함께 먼저 귀국하여 비어 있는 임금 자리를 차지한 소백(桓公)이 관중을 죽이려고 하자 포숙아는 “천하의 주인이 되려면 관중을 발탁해야 한다”고 간곡히 진언한다. 관공은 건의대로 관중에게 대부 벼슬을 내리 정사를 맡겼고, 그 결과 여러 제후들을 굴복시키고 패권을 쥐게 되었다. 포숙아는 관중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관중은 그런 포숙아가 고마워 끝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를 낳아 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아다”

두 사람의 우정이 2500년이 넘도록 세인들의 표상으로 전승되는 것은 천행(時勢)을 떠나 서로를 위한 마음이 도타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근대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불출마’를 종용할 의욕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로 검사 출신인 두 사람의 공방은 ‘우정론’과 ‘사찰론’으로 번지면서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어떤 우정



정준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법조칼럼



정인기

지금도 필자의 어머니는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을 자주 찾으신다. 명절 때면 그 횡수는 늘어나고, 필자도 짐을 옮겨 드리기 위해 반 강제적으로 동원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재래시장들의 주변 시설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점에 인과가 물리던 여전히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위 주차전쟁과 교통혼잡을 겪을 때면 가까운 대형마트를 두고 꼭 어떻게까지 해야 하나 무탈거리기도 했다.

추석 앞둔 재래시장

그러나 어머니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 위해 여러 상점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물건을 고르고, 어쩌다 제대로 흥정이 돼 좋은 물건을 싸게 사시는 경우 어린이처럼 좋아하셨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갈수록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점포가 속속 들어서 중소 상인들의 숨통을 조급씩 조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자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하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올 초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었다.

광주시 각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구들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부응한 바 있었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사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잇따라 소

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영업제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조급하게 문제를 이유로 조제의 무효를 판결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관련사건에서 해당 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대형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 주자 이들은 관바로 영업제한 등을 받지 않고 정상영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래시장, 동네 상권 등 중소기업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법원의 판결 취지가 위 영업제한 조제가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는 취지가 있어 광주시 산하 5개 자치구는 지난달 기존 조제를 개정·공포했고 현재 위 각 자치구에 개정 조제가 시행되고 있다.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 한다’는 것을 ‘명할 수 있다’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는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고친 것이다. 또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따라서 개정된 조제에 따르면 구청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해당 구청장들은 휴업일을 매월 특정일로 정하지 말고,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사정 등 월 단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기왕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날로 지정하면 한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은 개정된 조제에 의한 조치에 다시 반발할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경쟁발전 등에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재래시장 측에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시키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에도 필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재래시장을 방문할 것이다. 올 추석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성과로 모처럼 재래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상인들의 입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등 모두에게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한다. < 변호사 >

기고



신춘자

치과대학 교수 한분이 타구를 배우려고 제자와 함께 내 타구교실에 오셨다. 타구를 가르치다가 휴식시간에 수박을 먹게 되었는데 나는 평소처럼 곱창 씨가 박힌 빨강 속만 먹었다. 그러나 교수님은 수박의 진녹색 줄무늬의 알파한 곱창질만 남겼다. 언젠가 타구동호인 모임에서 수박을 먹던 중 모 기관장님이 알파한 곱창질만 남긴 그 수박곱질과 너무나 똑같았다.

모든 과일은 햇빛을 많이 받은 곱창질 쪽이 더 영양이 많다고 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때 “모든 과일의 곱창질을 받기 말고 먹자.”는 국가 시책을 발표했다. 그런 일본은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여 지금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가르치고 배우는 친구

나는 생선 머리를 고아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찹쌀 죽을 끓여서 김치를 담근다. 그렇게 담근 김치가 맛있다고 칭찬을 들을 때는 쓰레기로 버리려는 갈치머리를 모아다 김치공장을 운영하면 돈을 벌 것 같아 김치공장을 만들 구상을 해보기도 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삼형제 아들을 두고, 퇴직교수 아내로써 적지 않은 나이에 글을 쓰면서 타구를 가르친다. 그리고 육상에 흠을 몰려서 하반 툃발을 만들어놓고 과일과 관엽 모퉁을 꺾듯이 키우고 직접 달콤한 무화과를 수확하여 먹는 재미가 있다. 채소도 가꾸어서 부부가 먹고 남는 것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수박곱질 사건은 나를 그지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박 곱창의 줄무늬 단단한 부분만 벗기고 연녹색 부분을 갈아서 주스로 마셔 보았다. 오이냉채처럼 물김치도 만들어 보았다. 호박나물처럼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동침이무루로 만든 장아찌처럼 수박장

아찌도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다른 재료로 만든 맛이 나지 않았다.

매사에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거나 남이 먹기 힘든 음식을 먹는 근검절약 정신의 인성은 좋은 유전 환경 교육의 삼대요소가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그런 두 분은 부모까지 칭찬 받게 하는 효자다.

요사이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빨강 수박 속만 먹는 젊은이들이 많은 현실이다. 패륜의 뉴스를 들을 때 마다 학문적인 전공 교육도 중요하지만 덕성교육과 근검절약 정신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때맞추어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수님과 기관장님의 수박곱질 사건은 속세의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일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이런 기관장이라면 어떤 큰 기관을 맡겨도 안심이 될 것 같았다. 그런 교수님이라면 학문적인 전공교육 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근검절약정신 교육도 모범적으로 함께 잘 시킬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

그 교수님의 근검절약 정신은 수박곱질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나에게 타구를 배우는 그분의 제자와 함께 초대받은 교수님 주택은 340명의 대지에 목초로 건축한 고급 양육이었다.

10년 전부터 기른 애완견과 그 새끼까지 두 마리를 기르면서 정원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었다. 두력을 만들어 간간이 토마토랑 여러 가지 식 재료 과일과 채소도 손수 심고 가꾸었다. 벌레 먹은 과일이나 음식물 쓰레기로 기른 실크 오물계는 들새와 사이종계 먹이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오물계가 자라고 있는 그 옆 담장에는 토종닭이 알을 낳았다.

음식물 쓰레기로 동물을 기르면 쓰레기 처리 경비를 줄이고, 그 동물은 새끼와 알을 낳아주고, 동물의 분비물은 무공해 과일과 채소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자연의 약육강식 법칙과 종족보존의 법칙대로 동식물과 인간이 상부상조하는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여 일석삼조의 진리를 실천하고 있었다.

젊년의 교수님은 낮에는 본 업무에 충실하면서 내 글을 읽는 독자이고 타구 실력도 다른 회원보다 훨씬 빨리 향상된 타구제자요, 내 인생철학의 스승인 셈이다. <시인·수필가·전남여중고총동문연합회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민중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062-2200-628 팩스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무료관광 미끼로 약품판매 사기에 속지 마세요

어머니 친구분이 한 업체에서 배운다는 무료관광을 다녀오면서 수십만 원어치의 약을 사셨다.

공짜로 구경시켜 주며 점심까지 얻어먹었으니 미안해서라도 약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간 노인들 대부분이 약품을 구입했다.

더군다나 노인들의 병약한 신체상태를 이용해 만병통치약처럼 그럴싸하게 덧칠을 했었으니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약품판매사기였던 것이다. 검증받지 않은 약 성분보다 약발이 받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해치거나 앓을까 걱정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